

최소절개심장수술 ‘一石四鳥’

통증감소·조기회복·비용절감에 미용효과까지 뛰어나

선천성 심장질환에 最適

선천성심장질환의 수술법으로 흉골의 일부만 절개하는 최소절개심장수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통증 감소, 조기 회복, 비용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
지금까지 개심술은 목 아래에서 명치뼈까지 피부와 가슴뼈를 절개하는 전흉골절제술이 주로 시행돼 왔으나 이는 상처가 크고 부작용이 우려되며 회복기간이 오래걸리는 등 환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.

최근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용진·이정렬교수 연구팀은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77례의 선천성

심장질환에 대해 최소절개심장수술을 시행,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최소절개심장수술이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며 흉골의 조기회복과 안정성에 유리하다고 밝혔다. 특히 종전에는 목의 상부에서부터 명치까지 시행했던 피부절개를 목 5~6cm 아래에서부터 4~6cm만을 절개함으로써 목이 패인 옷을 입어도 상처가 보이지 않아 미용효과에도 탁월하다고 말했다.

한편 연구팀은 “지금까지 실시한 최소절개개심술 77례중 전체 선천성심장질환의 약 30%를 차지하고 있는 심실 및 심방 중격결손증이 68례를 차지해 많은 선천성심장질환자들의 수술시 적응증이 된다”고 말하고 지금까지 상흔관련 합병증 및 수술사망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.

<趙明德>